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언어 영역)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7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8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10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11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2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14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15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16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17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19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0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2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3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5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7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35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40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42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44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47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48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49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50	문항(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언어 영역

문항 번호 : 11

답변 내용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피동과 사동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문장에서 사용되는 ‘불리다’라는 동사의 동음이의어적 양상을 사전의 의미 정보와 연계하여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부르다²’의 의미가 ‘먹은 것이 많아 속이 꽉 찬 느낌이 들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르다²’에 제시될 품사 정보는 ‘㉡’이 아니라 ‘㉢’이 맞습니다. 출제 과정에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항에서 ‘부르다²’의 품사가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상관없이 ‘부르다²’의 사동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부호는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문항의 정답을 확정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항 번호 : 40

답변 내용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두 작품을 비교하여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작품 내적 상황에 한정하여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의 ‘비’는 가물었을 때(상황) 용(주체)이 물고기(대상)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맥적 의미가 ‘비’와 가장 가까운 것은 ‘죽조반’입니다. 작품 내적 상황에서 ‘백미’, ‘살림’, ‘새끼’는 주체가 대상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문항 번호 : 44

답변 내용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모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다만 『월인천강지곡』은 종성 자리에 ‘ㅇ’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인천강지곡』에는 ‘세世존尊’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서 한자음과 한자의 배치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문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원문과 달리 ‘생世존尊’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항을 푸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후 출제 과정에서는 지문 정보의 정확성에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수리 영역, 유 형(과 목): ‘가’ 형)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2	주어진 식의 계수가 실수라는 조건 누락으로 인한 문항 오류 또는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수리 영역 : ‘가’형

문항 번호 : 12

답변 내용 :

본 문항의 목적은 사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사차방정식의 근의 성질을 알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사차방정식에서 실수 계수 조건이 가정되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방정식과 다항함수는 모두 실수 계수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수리 영역, 유 형(과 목): ‘나’ 형)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7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이 더 있다는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1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을 이용한 극한계산에 대한 문항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5	$b_{k-1}, b_k, b_{k+1} + 1$ 이 등차수열을 이루는 k 값은 여러 개이므로 정답이 여러 개라는 문항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9	이의 신청자가 제시한 예에 의하면 정답이 다른 것이 된다는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30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정답과 다르다는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외국어(영어) 영역, 유형(과목):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9	기타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0	기타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6	기타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7	정답 오류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9	정답 오류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32	기타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36	기타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50	기타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윤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6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8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국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6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7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8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6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한국 지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4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6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2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9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사회탐구 영역 : 과목 : 한국 지리

문항 번호 : 2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우리나라의 영해 설정 기준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법(시행: 1996.9.10. 법률: 제5151호) 제2조 ①항에는“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영해가 제외된다는 <보기>의 ‘ㄷ’진술은 옳은 내용입니다. 또한 교과서(교학사 27쪽, 금성출판사 22쪽, 대한교과서 25쪽, 법문사 31쪽, 중앙교육 29쪽, 지학사 21쪽, 천재교육 22쪽)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경제 지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9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7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9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한국 근·현대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5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0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사회탐구 영역 : 과목 : 한국 근·현대사

문항 번호 : 5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1898년 11월 2일 자로 반포된 중추원 관제 개정 내용을 자료로 제시하여 대한제국의 정부 기구인 중추원에 대해 출제한 것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대황제', '인민들이 만든 협회' 등에서 대한제국이라는 특정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지 ②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중추원 관제 개정이 반포된 뒤 고종 황제가 12월 14일 정부에 중추원 개원 준비를 명하였고, 15일에는 중추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개원하여 의관들의 투표로 11명을 정부 대신으로 천거하였습니다. 중추원이 구성되어 활동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답지 ④는 오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세계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5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법과 사회)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4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0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2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3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5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9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사회탐구 영역 : 과목 : 법과 사회

문항 번호 : 13

답변 내용 :

본 문항의 주요한 사항인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물론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을 통해 B가 10억 원, D가 6억 원, E가 4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설령 동시사망의 경우에 대습상속이 적용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대습상속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위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혼인이란 법률혼을 말하고, 사실혼은 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정치)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6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7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2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15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경제)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8	문제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사회·문화)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8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	정답 이의 신청	정답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물리Ⅰ)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7	질량에 따른 높이의 비 그래프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과학탐구 영역): 화학 I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8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6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8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생물Ⅰ)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0	기억세포 생성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7	심장박동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8	생물농축에 대한 문항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	가계도 분석에 대한 문항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과학탐구 영역 : 유형(과목) : 생물 I

문항 번호 : 20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주어진 가계도를 분석하여 유전병을 통한 특정 유전의 방식을 이해하고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는 문항입니다. 사람의 유전에서 돌연변이나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아 가계도를 분석하여 특정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할 때 돌연변이나 염색체 비분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 형(과 목): 지구과학 I)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5	오존량의 변화 그래프 해석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2	해수의 용존 기체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항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8	행성의 겉보기 운동 그래프 해석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과학탐구 영역 : 유형(과목) : 지구과학 I 형

문항 번호 : 5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오존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해석하여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의 신청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염화불화탄소의 제조와 수입이 금지되었으므로 그 이후 대기 중의 염화불화탄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2004년 대기 중 염화불화탄소의 양이 1980년보다 많다는 <보기> ㄷ의 진술에 대해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염화불화탄소는 오존을 산소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촉매로 작용하여 그 양이 줄어들지 않아도 오존층을 지속적으로 파괴할 수 있으므로 역시 <보기> ㄷ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대기 중 오존량은 자연상태에서 생성되고 파괴되는 과정을 거쳐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증가된 염화불화탄소의 양에 의해 대기 중 오존 감소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래프에 나타난 2004년의 오존량이 1980년에 비해 작다면 2004년의 염화불화탄소의 농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화불화탄소는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1987년 이후에도 일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대기 중 염화불화탄소의 양을 측정한 결과를 보더라도 2004년이 1980년에 비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물리Ⅱ)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2	상태 변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항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과학탐구 영역) : 화학 II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7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형(과목): 생물II)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4	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0	주형 가닥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과학탐구 영역, 유 형(과 목): 지구과학Ⅱ)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	지진파의 자료 해석에 대한 문항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4	해수의 용존 기체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항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직업탐구 영역, 유 형(과 목): 공업 입문)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5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1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직업탐구 영역, 유 형(과 목): 상업 경제)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12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직업탐구 영역 : 유형(과목) : 상업 경제

문항 번호 : 12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해외 시장 진입 방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해외 시장 진입 전략 유형에는 수출 방식(간접수출, 간접수출)에 의한 진입과 계약 방식(라이선싱, 프랜차이징, 계약생산, 관리계약, 턴키계약, BOT 방식),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전략(자원 조달형 투자, 현지시장 접근형 투자, 해외 시장 거점형 투자, 선진 기술 습득형 투자, 수직적 해외 직접 투자,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이 있습니다(근거 자료: 신황호외 2인 두산출판사 p.220, 이기호외 2인 세계문화사 p.181, 이영호 외 2인 교학사 p.203, 김홍대 형설출판사 p.215와 p.218, EBS 수능 Choice 상업경제 p.153 등). 제시문에 나타난 계약 방식에 의한 해외 진출은 기술이나 지식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즉,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해외의 외국 기업체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 하나인 BOT 방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BOT 방식에 관한 개념은 공장이나 설비를 설치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하고 발주자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거 자료 : 이영호외 2인 교학사 p.203, EBS 수능 Choice 상업경제 p.153) 따라서 제시문에 나타난 BOT 방식은 도로·항만·교량 등을 건조한 시공사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뒤 주문자에 넘겨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출 대상국 정부나 혹은 상대 기업의 요청에 의해 특정 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계약 방식에 의한 해외 진출 방식입니다.

이의신청하신 <보기> 답지의 ㄴ. 해외의 자원 조달 및 수출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라는 선택지의 해외의 자원 조달의 경우에는 계약 방식에 의한 해외 진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해외 직접 투자 유형 중 하나의 형태인 자원 조달형 투자(자연 자원 지향형 해외 직접 투자로써 광업, 임업, 수산업 부문의 해외 직접 투자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 편중 현상으로 인하여 선진 국가의 기업들이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방식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사례로 제시하신 포스코의 경우에도 BOT를 추진하면서 자원 개발과 연계한다는 것이지, BOT자체가 자원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참고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BOT방식 자체가 자원 개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BOT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과 연계해 자원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OT방식을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에는 자원 개발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문항의 정답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참고 자료 (헤럴드 경제, 2010년 3월 30일자)]

포스코그룹이 세계적 자원부국 콩고민주공화국의 유일한 항구인 바나나항 개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24일 포스코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건설이 국토해양부 등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와 함께 콩고를 일주일 일정으로 방문해 현지 바나나항 개발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번 방문에는 포스코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 관계자도 동행했으며, 현지 콩고 정부 관계자와 만나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그룹이 이번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콩고 재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바나나항 개발을 현지 자원 개발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양국 정부는 개발협력 대상을 대서양에 접한 콩고민주공화국의 바나나항으로 정하고, 약 5000억원을 투입해 일반부두 3선석과 컨테이너부두 2선석 및 항로준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 참여에 따른 수익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OT: Build- Operate - Transfer) 방식으로 추진하며, 비수익 사업은 콩고 정부의 협력에 따라 코발트와 구리 등 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딜로 진행하기로 했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제2외국어/한문 영역, 유 형(과 목): 일본어 I)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6	‘あいだ’와 ‘うち’의 시간적 의미의 차이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7	병문안시 인사표현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8	교육과정 위배에 대한 이의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14	‘手伝う’와 ‘助ける’의 의미 차이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제2외국어/한문 영역 : 유형(과목) : 일본어 I

문항 번호 : 6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어휘 영역의 문항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うち」와 「あいだ」는 의미적으로 지속시간을 나타내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 ひまわりは留守のうちに(あいだ)かなり大きくなっていた。

(해바라기는 집을 비운 사이에 꽤 자라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留守のうちに」는 ‘留守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라는 의미로서 「留守のあいだ」는 ‘留守 기간 내내’라는 의미로서 시간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あいだ」는 ‘어느 기간 내내(동안)’를 의미하지만 이의신청의 「うち」는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이전에, 또는 기간 이내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문제의 「長い」는 한정적인 기간이 아니고 ‘오랫동안 (쭉)’이라는 기간 내내를 의미하므로 「うち」는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うち」를 넣게 되면 ‘오랜 시간 이내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라는 표현이 되므로 의미적으로 모순이 된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오류가 없다.

문항 번호 : 7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병문안시의 인사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お元気で」와 「お大事に」가 모두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나 사용되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お元気で(건강히 계세요)」는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하라는 의미의 인사말로 본 문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 즉 병으로 입원중인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인사말이다.

건강한 사람에게 「お元気で(건강히 계세요)」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길 바라는 인사말이 되지만 링거를 맞으며 병원의 침상에 누워 입원중인 환자에게 계속 건강을 유지하라는 의미의 「お元気で(いてください)」라는 인사말은 장면에 맞지 않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오류가 없다.

문항 번호 : 14

답변 내용 :

본 문항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게 도움을 자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묻는 의사소통문제이다.

이의신청에서 제기한 것처럼 「助ける」는 「手伝う」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해석으로는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助ける」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다’라는 의미로서, ‘돕다, 거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스스로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힘을 빌려주어 플러스 방향으로 이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러나 「手伝う」는 ‘스스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대상에게 힘을 빌려주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시문의 「にもつ(짐)」와 같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도와주려는 장면에서는 「手伝う」는 자연스럽지만 「助ける」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므로 일본어의 언어행동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된다. 또한, 용법으로 볼 때 「助ける」는 단순히 돕는다는 의미로서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직접 「助けましょうか」와 같은 자청 표현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오류가 없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제2외/한문 영역, 유 형(과 목): 한문)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

번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설명 탑재 여부
28	정답 이의 신청	정답(문제)에 이상이 없음	◎

제2외국어/한문 영역 : 유형(과목) : 한문

문항 번호 : 28

답변 내용 :

본 문항의 목적은 산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숙지한 다음 뜻에 따라 음이 바뀌는 한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1. 본 문항은 “況三千里錦繡江山，復爲我有，何樂如之?”에서 ‘復’의 음을 묻는 것입니다. ‘復’자는 ‘다시’의 의미일 때는 음이 ‘부’이고, ‘회복하다’의 의미일 때는 음이 ‘복’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하물며 삼천리금수강산이 다시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 어떤 즐거움이 그만하겠는가?”입니다.

본문에서 ‘三千里錦繡江山’이 주어이고 ‘復爲我有’가 서술어이므로, ‘復爲’는 ‘다시 ...이 되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復’는 ‘부’로 읽어야 합니다.

‘復’가 ‘회복하다’ ‘수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주로 ‘復’ 다음에 명사 혹은 명사구가 오게 됩니다. 이의제기와 같이 동사가 연달아 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자는 ‘동사+爲’가 ‘일반적 결구형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문문법에서 ‘동사+爲’가 독립된 기능을 하는 문법구조의 예는 없습니다.

또한 이의제기자는 ‘復爲’를 하나의 연사(連詞)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어떤 문법서에도 ‘復爲’를 하나의 연사(連詞)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한어허사사전(古漢語虛詞詞典)』(p.89, 北京大學出版社, 王海棻 外, 1996.)에서는 “復가 동사 앞에서 사용되어, 동작이나 상황이 재차 시행되거나 연속하여 출현하는 것을 표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품사는 부사입니다.

『고대한어허사사전(古代漢語虛詞詞典)』(p.163, 商務印書館, 1999.)에서도 “동사나 위어(謂語) 앞에 사용되어 동일한 동작 행위가 중지되었다가 실행을 회복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재차’의 의미로 풀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문으로 『춘추좌전』의 “惠伯成之，使仲舍之，公孫敖反之，復爲兄弟如初”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혜백(惠伯)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양중(襄仲)에게 거(莒)나라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단념시키고 공손오(公孫敖)에게 그 여자를 돌려보내게 하고 다시 이전과 같이 형제 사이를 친하게 지내게 하였다.”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復’는 ‘다시’의 의미이고 따라서 음은 ‘부’입니다. 『春秋左傳注疏』에서도 “復音服又扶又反”이라고 하여, 음은 ‘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이의 제기자가 논거로 예시한 2개의 문장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의제기자는 3개의 문장을 예시하였으나 그중 세 번째 문장은 ‘復爲’와 무관하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1) 陳餘已敗張耳，皆復收趙地，迎趙王於代，復爲趙王. 『史記，張耳陳餘列傳』

■ 중국어 번역 1 : 陳餘已經打敗張耳，全部收復了趙國的土地，到代縣去迎接趙王，讓他再做趙國的國王.(『史記全譯』, p.3301, 楊燕起 註譯, 貴州人民出版社, 2001.)

■ 중국어 번역 2 : 陳餘打敗張耳後，收復了趙國的地盤，從代地縣迎回趙王，再在趙地作趙王.(『二十四史全譯』, 『史記』第二冊, p.1140, 楊燕起 註譯,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우리말 번역 : 진여가 이미 장이를 격파하고 나서 조나라의 토지를 모두 수복하고 대현에서 조왕을 맞아들여 그를 다시 조나라의 국왕이 되게 하였다(조나라의 국왕으로 만들었다<삼았다>).

(2) 漢王賜嬰爵列侯，號昭平侯，復爲太僕. 『史記，樊鄴滕灌列傳』

■ 중국어 번역 1 : 漢王賜給夏侯嬰列侯爵位，稱號是昭平侯，重新擔任太僕. (『史記全譯』,

p.3444, 楊燕起 註譯, 貴州人民出版社, 2001.)

■ 중국어 번역 2 : 漢王封夏侯嬰爲列侯, 稱昭平侯, 仍然擔任太僕. (『二十四史全譯』, 『史記』第二冊, p.1189, 楊燕起 註譯,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우리말 번역 : 한왕이 하후영에게 열후의 작위를 하사하고 소평후라고 칭하였으며 다시 太僕을 맡겼다(太僕으로 삼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제기자가 제시한 (1), (2)번 예문도 모두 ‘復爲’를 하나의 연사(連詞)로 취급할 수 없으며, ‘復’의 의미는 ‘다시’이고 음은 ‘부’입니다.

3. ‘復爲’가 ‘다시~이 되다’로 풀이되는 기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예시문 ①, ②, ③은 출제 문항 28번의 문장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復爲我有’가 ‘다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로 풀이되는 예시입니다.

① 海西十三州, 皆復爲我有.(『白沙先生集』卷之三, 「延安李公碑」)

■ 우리말 번역 : 해서(海西)의 십삼주(十三州)가 모두 다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② 惟北評事鄭文孚起兵, 大敗吉州之賊, 一舉殲盡七百餘賊, 方有席卷之勢云. 若鐵嶺以北, 復爲我有, 而更收嶺東西, 以達於嶺南, 則東南氣勢, 可以相通, 恢復之形成矣, 而所未知者, 天意如何耳.(『西厓先生別集』卷之三, 「與金士純」)

■ 우리말 번역 : 오직 북평사(北評事) 정문부(鄭文孚)가 기병하여 길주의 적을 크게 패망시켜 일거에 7백여 명의 적을 섬멸하여 바야흐로 석권하는 형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철령 이북이 다시 우리 소유가 되고 또한 영동·영서를 수복하여 영남에까지 이른다면, 동남의 기세가 서로 통하여 국토를 회복할 수 있는 형세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뜻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③ 七年對壘之賊, 一朝退遁. 雖未能追擊殲滅, 而湖嶺二南沿海一帶, 爲賊窟穴之地, 復爲我有, 社稷生靈之慶, 孰有大於斯者乎? (『朝鮮王朝實錄』宣祖 107卷, 31年 12月 2日(癸丑) 6번째 기사)

■ 우리말 번역 : 7년간 대진(對陣)하고 있던 적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쳤습니다. 적들을 추격하여 섬멸시키지는 못했지만, 적의 소굴이 되었던 영남과 호남의 연해 일대가 다시 우리의 소유로 되었으니 국가와 민생의 기쁨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④ 馬軍大將軍, 伊昕巖, 棄市. 昕巖業弓馬, 見利躁求, 事弓裔, 以鉤距, 得見任用. 至裔末年, 襲取熊州, 因而鎮之, 聞王卽位, 潛懷禍心, 不召自至, 士卒多亡, 熊州復爲百濟所有. (『高麗史節要』卷之一, 太祖神聖大王 戊寅元年 後梁 末帝 貞明四年, 契丹 太祖 神冊三年)

■ 우리말 번역 : 마군대장군(馬軍大將軍) 이흔암(伊昕巖)을 저자에 내어 죽였다. 흔암은 무인(武人)으로 이익을 취하는 데 조급하였고 궁예를 섬겨 은밀한 일을 탐지해 바치는 것으로 신임을 받았다. 궁예의 말년에 이르러 웅주(熊州)를 습격해 빼앗았으므로 그대로 그곳을 지키게 하였는데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서,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떠나오니 사졸들이 많이 도망해버렸으므로 웅주가 다시 후백제의 소유가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況三千里錦繡江山, 復爲我有, 何樂如之?”는 “하물며 삼천리금수강산이 다시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 어떤 즐거움이 그만하겠는가?”로 풀이해야 하며, ‘復’의 의미는 ‘다시’, 음은 ‘부’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